

이통사, 5G 덕에 실적 '훨훨'... 하반기도 신사업 '장밋빛'

이통3사 2분기 실적

이통3사 영업익 1조 돌파 전망
품질논란 속 5G 가입 증가세
전분기 대비 136.5만명 늘어
구독·플랫폼 등 신사업 기대



이동통신사들이 2·4분기 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세대(5G)는 품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수 증가가 계속되면서, 이통3사 영업이익을 합산하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망된다. 전 분기에 이어 1조원 돌파가 이어지는 셈이다.

1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분기 매출은 4조847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981억원을 기록해 10.7%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 KT는 매출 6조 1070억원을 기록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2% 늘고, 영업이익은 3987억원으로 16.6%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도 3조4475억원 매출을 거둬 전년 동기 대비 5.3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675억원을 기록해 11.6%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3사의 예상 영업이익을 합하면 총 1

조643억원 규모다. 전 분기엔 1조1086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실적 호조 전망에는 5G 가입자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5G 가입자 수는 1584만1478명을 기록해 전 분기와 비교해 136만5460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에는 5G 상용화 후 2년 여 만에 1500만명 가입자수를 돌파했다. 이는 당초 이통사들이 내세운 지난해 말까지 1500만명 5G 가입자 돌파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가 계속되고 품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호한 실적이다.

◆증권사, SKT 4년 만에 4000억원대 영업이익 회복 전망

증권사에서는 SKT에 대해 5G 가입자가 지난 4월 700만명을 넘어서며 이동통신(MNO) 매출이 증가하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마케팅 기조도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커머스 부분은 최근 경쟁이 가열되면서 2분기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 4년 만에 4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분기 매출액이 4조 8066억원을 기록해 4.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4026억원을 달성해 12.7% 늘어날 것이며 5G 가입자가 전 분기 대비 100만명 증가한 773만명을 기록하고, 무선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는 3만 412원에 달할 것"이라며, "SK브로드밴드는 실적 호조가 이어지겠지만, 11번가는 마케팅 경쟁 강화로 소폭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베스트증권 이승우 연구원은 "2분기 매출은 4조 9000억원(6.6% ↑)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4174억원(16.1% ↑)을 기록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SKT는 하반기 새로운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어서, 신규 수익원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SKT는 월 9900원 요금으로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업체 무료배송, 클라우드, 11번가 무료 배송과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웨이브, 음약스트리밍 플로와 프랜차이즈 카페나 베이커리 할인 중 추가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KT, 이동통신 ARPU 경쟁사 대비 4~6% 높아... e커머스 시장 경쟁력 강화 기대

증권사들은 KT도 이동통신 사업과 IPTV 실적 호조 등으로 양호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증권 최관순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매출 6조 778억원(3.4% ↑), 영업이익 4027억원(17.6% ↑)으로 예상하며, 5월 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481만명, 이동통신 ARPU는 경쟁사 대비 4~6% 가량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무선 부문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IPTV와 초고속인터넷 등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유선 부문에서도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KT는 최근 KTH와 KT 엠하우스 합병을 통해 KT 알파를 출범하고 커머스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KT알파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들을 선보이고, 쇼핑물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에 나설 계획이어서, e커머

스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KT가 최근 5G 이동통신 단독모드(SA)를 국내 이통사 중 유일하게 시작해 점유율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LGU+, 무선 서비스 매출 매 분기 최고 행진, IPTV 두자리수 성장

증권가는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5G 서비스 보편화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IPTV 사업은 13년째 두자리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무선 서비스 매출은 2019년 턴어라운드 후 매 분기 최고 매출을 달성해 실적 호조를 기대하고 있다.

대신증권 이지은 연구원 "매출은 3조 4000억원(5% ↑), 영업이익은 2700억원(11% ↑)을 기록하고, 무선 서비스 매출은 1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해 매 분기 최고 매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IPTV와 인터넷은 각각 11%, 8%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분기 5G 순증은 42만명으로 추정되는데 플래그쉽 단말 효과 소멸로 전 분기 대비 순증은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고, 무선·유선·B2B(기업간) 사업 모두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윤정 S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12인치 대화면, 디자인 UP... 60만원대 혁신

삼성 '갤럭시 탭 S7 FE' 국내 출시

오늘부터 사전예약 스타트
스마트폰·노트북과 '원팀'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 S7 FE'를 23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 /뉴스1

삼성전자가 '가성비'를 갖춘 신형 태블릿으로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3일 갤럭시 탭 S7 FE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갤럭시 탭 S7 FE'는 갤럭시 탭 S7 장점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가격 부담을 낮추고 실용성을 높인 제품이다. 갤럭시 탭 S7이 높은 성능으로 시장 점유율을 대폭 높인 상황에서 이번 모델로 시장 균화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우선 화면은 갤럭시 탭 S7+와 같은 12.4형으로, 최대 3분할해 세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원하는 앱을 최대 3개까지 묶어 놓으면 터치 한 번으로 앱을 동시에 펼칠 수 있다.

연결성도 개선된 모습 그대로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작업을 오가며 할 수 있고, 스마트폰 사진이나 메모를 전송 받을 수도 있다. 노트북과 연동해 '세컨드 스크린'으로 듀얼 모니터로도 활용 가능하다.

디자인은 일체형 메탈 디자인에 작은 카메라 하우징에 슬림한 외형으로 세련됨과 편안한 그림감을 제공한다. 미스틱 그린, 미스틱 핑크, 미스틱 블랙, 미스틱 실버 등 무광 파스텔톤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그린 컬러는 갤럭시 탭에 처음 적용했다.

S펜도 쓸 수 있다. 고무재질의 펜촉으로 보다 세밀한 필기가 가능하다. 삼

성 노트에서는 S펜으로 작성한 손글씨를 텍스트로 바로 변환할 수 있고, 작성한 내용을 분석해 적당한 제목과 해시태그도 제안해 메모 정리할 때 편리하다. 웹앱과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등 앱도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돌비 애트모스와 AKG 사운드를 적용해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는 듀얼 스피커 ▲고사양 게임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는 파워 퍼포먼스 ▲10090mAh의 대용량 배터리도 갖췄다.

용량은 64GB와 128GB 2가지다. 가격은 69만9600원에서 84만400원이다. 삼성전자는 23일 출시에 앞서 19일부터 21일까지 삼성닷컴과 네이버, 11번가, G마켓, 위메프 등 오픈마켓 및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 8월 31일까지 '갤럭시 탭 S7 FE'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정품 슬림 키보드 북커버 50% 할인 또는 정품 북커버를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과, 유명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멘디니와 칼라버로 제작한 투카노 멘디니 갤럭시 탭과

우치를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구매 고객은 삼성 멤버스 앱에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왓차 6개월 베이직 이용권 ▲밀리의 서재 3개월 이용권 ▲갤럭시 스토어 게임 아이템 1만원 할인 쿠폰 ▲클래스101 20만원 상당의 쿠폰팩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juk@



인텔, GF 인수 추진... 삼성 위기감 고조

인텔, M&A에 34조 승부수
인수면 파운드리 3위 경쟁
TSMC 쫓던 삼성에 '악재'

안정성을 중시하는 만큼, 수많은 고객사를 손쉽게 확보한다는 장점도 있다.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GF) 인수에 나선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를 향한 위기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그동안 외부에 맡겼던 반도체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인텔은 CPU를 비롯한 핵심 부품은 자체 팹에서 생산했지만, 난이도가 낮은 주변부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TSMC에 생산을 의뢰해왔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파운드리 사업 확대뿐 아니라 자체 제품 시너지를 높일 수도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GF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인수 규모는 300억달러 수준, 여기엔 미국 정치계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GF는 파운드리 시장 3위 업체다.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등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AMD에서 분리된 회사였으나 지금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삼성전자가 꼽힌다. 일찌감치 EUV 공정을 도입하며 업계 압도적 1위인 TSMC를 비로소 따라가기 시작한 상황, 인텔이 파운드리 경쟁력을 키우면 현재 '2강' 구도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텔이 EUV를 발 빠르게 준비중, GF도 다시 EUV 도입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진다.

GF는 기술적으로는 TSMC와 삼성전자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14나노 이후 극자외선(EUV)을 활용한 7나노 진입을 포기하면서 첨단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이미 뒤쳐진 상태다.

특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문 투자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일찌감치 미국 투자를 결정하긴 했지만 아직 지역도 확정하지 못했고, 이제 계획을 확정해도 내년 하반기 가까워서야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인텔도 GF를 인수해 얻을 기술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인텔 양산 기술이 10나노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는 있지만,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트랜지스터 집적 능력으로는 1~2단계를 뛰어넘는 만큼 GF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이다.

1위인 TSMC는 점유율을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넘어서려는 모습이다. 지난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에 성공하며 파운드리 업계 강자임을 확실하게했다.

단, 인텔이 GF를 인수하면 단순히 파운드리 업계 3위로 올라서면서 점유율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운드리 업계가 신뢰와

/김재용 기자 juk@